

## ACE 1. 바른 믿음을 갖기 위하여

이번 주부터는 저는 여러분과 사도 신경에 대해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사도 신경 강해를 위한 서론을 공부하겠습니다.

이번 사도 신경 공부, 자신의 구원에 대한 확신 뿐이 아닌, 부활의 확신과 내세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바라는 것은, 이 땅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시 부활에 참여하여 신천신지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호세아 4:6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우리는 사도 신경을 매주 예배 때마다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신경 안에는 기독교인이 반드시 믿어야 할 믿음의 내용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사도 신경에는 기독교인이면 반드시 알아야 할 믿음의 내용들이 들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구절도 그 내용을 몰라도 되는 구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신경의 각 구절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알고, 그 내용을 이해한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느 사람을 붙잡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고 묻는다면, 아니면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이 무슨 뜻이냐 하고 물으면, 정확히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것은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이거나, 새로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는

사람의 구별이 없습니다. 앵무새처럼 반복적인 낭송은 잘하는데 그것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기계적으로 반복합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그 원인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사도 신경을 교리적으로 설명한다는 것이 딱딱하고 어려워 그것을 가르친다고 하여도, 교인들이 잠이나 자고 하품이나 할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topic으로 삼기를 회피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도 신경은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요 본질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해하고 믿고 있어야 합니다. 이번 기회에 잘 배워 평생의 영의 양식으로 삼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먼저 사도 신경이라는 것이 무엇이나 하는 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 신경은 기독교인들이 믿는 믿음의 내용을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천상 교회든 지상 교회든, 유형 교회든 무형 교회를 막론하고 과거 2000년 동안, 또 앞으로 존재할 모든 기독교회가, 공통적으로 고백할 신앙 고백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universal creed**, 보편적 신앙 고백이라고도 불리워 집니다. 사도 신경은 내용이 바뀌어질 수 없습니다.

사도 신경의 유래는,

전설에 의하면 예수님의 12 사도가, 핍박으로 인하여 선교지로 흩어지기 전에 자신들의 믿음을 한가지씩 고백하고, 그것을 모아 교회에 전수해 준 것이라고 전해 집니다. 그래서 2세기 때부터 벌써 지금과 비슷한 사도 신경이 예배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사도 신경이 중요한 이유는

사도 신경에 의해 정통 신앙과 이단 사실이 구별됩니다. 사도신경은 과거 2000 년 동안 교회에서 믿음의 내용으로 고백한 것이기 때문에, 사도 신경을 그대로 믿는 교회는 정통 신앙의 바탕 위에 있는 교회이며, 그렇지 않은 교회는 이단이 됩니다.

사도 신경의 내용을 칼빈은 네 부분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 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trinity)라는 말은 우리가 믿는 유일하신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인격(three persons)이 일체를 이루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라는 용어를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신경의 첫 번째 부분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둘째 부분은 성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네 번째는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소망에 관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사도신경에서 보면,

<성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God),

<성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독생자 The Only Begotten Son)),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동정녀 탄생 Virgin Birth),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고난 Passion),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 나시며,(부활 Resurrection)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재위 Session)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재림 2nd Coming)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부분>은

성령을 믿사오며(Holy Spirit),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소망>

거룩한 공회와,(Holy Catholic Church)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Communion Of Saints),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죄용서 Forgiveness of Sin)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영생 Eternal life). 아멘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믿음의 요소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2. 믿음의 구성 요소

사도 신경 안에는 우리가 믿어야 할 믿음의 내용이 들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내용에 대한 강해에 들어가기에 앞서 **믿음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를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지식과, 동의와, 신뢰를 믿음의 삼요소라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지식과 동의와 신뢰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골고루 활동해야 균형잡힌 신앙이 됩니다. 지식에만 치중하면 cold 해지고, 감정에만 치중하면 맹목적이 되고, 의지에만 치중하면 생고집이 됩니다. 믿음이 균형있게 되기 위해선, 어느 한 부분에만 치중해서는 안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성과 감정과 의지의 전인격적 활동입니다.

### 2.1 단순 지적 동의에 대하여

건강한 믿음은 이성과 감정과 의지가 전인격적으로 활동하는 것이며, 전인격적으로 지식과 동의와 신뢰가 있어야 건전한 믿음이 됩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를 제대로 겸비한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올바른 믿음으로 성장하기 위해선, 단순한 지적 동의(**simple mere consent of knowledge**)와 신뢰의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단순한 지적 동의와 신뢰의 차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한 지적 동의”에 대해 정의를 내리면,

단순한 지적 동의는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알고 그것을 진실이라고 단순히 인정하는 것**을 말하고,

“신뢰”는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알고 그것을 자신의 구원을 위해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우리는 이 순신 장군의 위대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철갑선을 만들었다는 것은 차치하고, 더욱 위대한 것은 왜군의 침입에서 나라와 민족을 구원한 것입니다. 이 순신 장군은 임진왜란 때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였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지식으로 알고 동의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단순 지적 동의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였지만, 이순신 장군이 지금의 한국과 민족을 구원할 지도자라고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순신 장군에 대한 과거의 역사적 사실에 대해 동의하지만, 현재의 한국의 구원자로서는 신뢰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과거 조선의 백성들을 구원했지만, 지금 한국 백성들을 구원할 지도자로서는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순신 장군이 위대한 장군이요 지도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과거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단순한 지적 동의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지적 동의를 했다고 해서 지금의 한국의 구원자로

신뢰하느냐 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신뢰” 는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알고 그것을 현재의 구원을 위해 의지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똑같이 예수님에 대해서도 2000 년 전 유대 지방에서 태어나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단순한 지적 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단순한 지적 동의를 하면서도, 현재의 자신의 구원을 위한 구원자로서는 신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똑같이 사도 신경에 대해서도, 단순한 지적 동의를 하여도, 신뢰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신경을 다 외우고 그 내용을 기억하며 지적 동의를 하였다 할지라도, 그것을 신뢰한다는 것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지적 동의와 신뢰의 차이입니다.

사도 신경에 대해 알기만 하고 신뢰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지적 동의만 하고 신뢰하지 않는 것에 대해 야고보서 2:19 에서는,

귀신들도 알고 떠다고 합니다.

야고보서 2 : 19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단순한 지식은 가지고 있었지만,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떠는 것 외에는 아무 유익이 되질 않았습니다.

단순 지적 동의만 한 사람은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떨 것이요, 자신의 구원에 대해 예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죽을 때 평안히 아버지 품에 안기듯 눈을 감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눈을 감을 때, 예수님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리라는 것을 믿고, 마음놓고 눈을 감을 수 있어야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신의 구원을 위해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믿음이 지식과 동의와 신뢰에 찬 반석 같은 믿음이 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 가신 것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나를**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하늘 나라에 있게 하실 것이라고 예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이런 신뢰는 사도 신경의 내용을 알고 **나의 구원을 위한** 것으로 신뢰할 때 가능합니다.

이런 신뢰는 사도 신경의 각 구절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이해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자신의 마음 깊숙히 받아 들이고, 그것들을 자신의 믿음의 내용으로 깊이 깊이 신뢰를 할 때 가능합니다.

지식과 동의와 신뢰 위에 선 믿음만이 반석 같은 믿음이 되고, 우리가 바라는 소망은 이 믿음 위에 설 때만 굳건한 소망이 됩니다.

### 3. 건강한 믿음

건강한 믿음을 위한, 지식과 동의와 신뢰를 각 부분 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3.1 지식

##### 3.1.1 믿음과 지식의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누구 누구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을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 아는 것이 없으면 그 사람을 믿는 것도 없습니다. 알지 못하는 사람을 결코 믿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지식은 믿음의 기초가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도 이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을 믿는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공부가 없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대한 반석 같은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공부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증가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 하나님을 알기 위한 공부는 등한히 하면서, 강한 믿음을 갖기 원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일년 내내 성경은 한번도 들여다 보지 않고 주일날 교회에 와서 하나님 하나님 하고 부르는 사람은 코끼리를 만지는 장님보다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기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 공부를 해야 합니다.

지식은 우리의 이성적 부분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바른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 지식이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을 의미합니다. 호세아 6 : 6 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the knowledge of God)을 원하노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이 구절에서 번제라는 말은 지금 우리의 예배라고 하여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호세아 6:6 은 다음과 같이 바꿀 수 있습니다.

나는 너희들의 예배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다른 어떤 activity 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각 시대마다 그 시대의 맹점이 무엇이나 하면, 교회에 말씀 공부와 관련이 없는 activity 에 너무 바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activity 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하고, 믿음을 성장시키는데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지식이 없으면 구원으로 이끌지 못합니다. 이것에 대해 호세아 4:6 은,

호세아 4 : 6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공부와 지식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식하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로마서 10 : 2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로마서 10 : 3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 사랑을 받기 원하는 복있는 사람이 되기 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공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구절은 제사장들 즉 교회의 리더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가르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백성을 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leader** 는 자신뿐만이 아니라 그의 후손조차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것을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고백하기를,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빌립보서 3 : 7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고, 그런 것들을 모두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두 말할 필요 없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날마다 자라가야 합니다.

**3.1.2 다음은 지식이 주는 유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자연을 알아야 하는 것처럼, 죄를 정복하기 위해선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자연에 대한 지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자연을 지배하는 영역이 넓어지는 것처럼, 성경에 의해 믿음의 지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죄를 정복하고 죄에서 자유로와 집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사실을,

**요한복음 8:31**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요한복음 8:32**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지식의 증가에 따라 우리는 점점 자유케 되며 우리는 더욱 큰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진리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자유는 고사하고 마귀의 종노릇만 하게 됩니다.

죄에 대한 지배의 영역이 넓어졌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 그 사람 안에서 그 만큼 능력있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자유의 영역의 증가는 진리를 알고 실천함으로부터 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들은 이 뜻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자신을 정복하여 옛사람에게서 자유롭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아 성령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만큼 그 사람은 자신에게서 자유롭습니다. 육신의 속박에서 자유로와 집니다. 육신의 속박에서 벗어난 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 집니다.

**3.1.3**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 우리가 얻는 또 다른 유익함은 지혜가 증가하는 것입니다.

지식이 사물 자체를 아는 것이라고 할 때, 지혜는 그 지식을 사용하는 방법을 아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지식이 많으나 지혜를 얻지 못해, 자신에게나 남에게 덕을 세우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은 지식과 지혜가 골고루 배합되어야 하며, 이것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배울 때 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9:7** 여호와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우리가 가정에서, 혹은 교회에서 덕을 세우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을 공부하여 지혜와 지식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Moody** 선생을 아실 것입니다. 이미 작고 했지만 금세기에 있어서 미국의 가장 큰 전도자의 한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구두 수선공이었습니다.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신학 공부는 물론 안했습니다. 그렇지만 남다른 복음 전도에 대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어느 날 영국에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단상에서 내려 오는데 어느 신사가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당신이 전한 말씀 중에서 틀린 문법이 몇 군데나 있었는지 아십니까? 17 군데나 있었습니다.”

그러자 무디 선생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배운 것이 부족하여 아마 당신의 말이 맞을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몇 사람이나 전도해서 예수님을 믿게 했습니까?”

이 말을 듣자 이 신사는 부끄러운 듯 아무 소리 못했습니다.

이 예화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혜를 가진 사람과 **지식만** 가진 사람의 차이를 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성경 공부와 지식은 우선 자신의 신앙과 경건의 성장에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남을 돕고 남의 신앙을 세워주는데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지식과 지혜를 함께 얻은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런 지식은 남을 판단하는데 사용하게 되어 자기와 남을 죽이는 것이 됩니다.

### 3.2. 동의는 지식에 대한 동의를 의미합니다.

그 지식이 옳다고 감정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amen** 하며 동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으로 **amen** 할 때 그 유익함에 대해 잠언 2:10 은,

지혜가 네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네 영혼에 즐겁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amen** 할 때마다 지혜와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하루는 예수님께 안수를 받으려고 애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제자들은 이것을 보고 서 애들의 부모를 꾸짖었습니다. 이 때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 : 13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마가복음 10 : 14 예수께서 보시고 분히 여겨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마가복음 10 : 15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처럼 받들어야 천국에 들어 간다고 번역된 것은 잘못된 번역입니다<sup>1</sup>.

어린 아이가 받는 것처럼 천국을 받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천국에 들어 가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어린 아이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단순성과 청결성입니다.

어린 아이들은 성경의 가르침에 그냥 **AMEN** 합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안 그렇습니다.

또 어린 아이들은 잘못된 것을 가르쳐 주면 금방 인정합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안 그렇습니다. 어른들은 잘못을 지적해주면 자기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합리화합니다.

<sup>1</sup>. 15. **as a little child.**—Strictly construed this clause means, "Whosoever shall not receive the kingdom of God as a little child receives it." To receive the kingdom of God is a different act from entering into it. The distinction is made in this very sentence: "Whosoever shall not receive the kingdom as a little child, he shall not enter therein." Receiving it precedes entering into it, and means no more than accepting its teaching. This a little child does with an implicit faith from the moment that its understanding is sufficiently developed.—Commentary on Matthew and Mark

출애굽기 32:9 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목이 곧은 자라고 하였습니다. 목이 곧은 자(stiffnecked people)는 완고하여(obduracy) 뉘우치지 않는(impenitence) 사람을 말합니다.

목이 곧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아멘하지 않습니다. 아멘하고 동의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질 않습니다. 모세를 따라 나온 목이 곧은 출애굽 1 세대는 모두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죽고, 출애굽 2 세대만 가나안 땅에 들어 갔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장성할수록 마음은 어린 아이처럼 단순해지고, 신앙에 여물이 들면 들수록 마음은 순수해집니다. 곧은 목은 점점 연해집니다. 잘못을 얼른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어린 아이처럼 마음이 점점 단순해지고 순수해집니다. 이런 변화를 자기의 신앙 생활 가운데 체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저의 것입니다.

**3.3 신뢰는 total commitment**,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자신의 구원을 완전히 믿고 맡기는 의지의 활동입니다.

**3.3.1** 신뢰는 우리의 의지의 활동이라는 것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에서 의지적 부분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카톨릭에서는 믿음을 지식으로 이해하여, 교회에 나가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종교 개혁자들은 우리의 믿음의 핵심을 신뢰로 이해하고 계속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며, 신뢰는 의지의 활동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의 의지로 믿음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환란이 있거나 어려운 일이 있어도 변함없이 주만 의지하는 의지의 활동을 신뢰라고 합니다.

신뢰에 대하여 바울은 디모데 후서 1 : 12 에서,

**내가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 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구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신뢰에 대하여 아주 중요한 것을 선언합니다. 첫째는 자신이 신뢰하고 있는 자가 누구지 안다는 지식과 함께, 자기에게 약속하신 바 구원의 약속을 믿고, 예수님께 자신의 구원을 완전히 맡긴다는 것, **Total commitment** 입니다.

이와 같이 먼저 알고 모두 믿고 맡기는 것을 신뢰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뢰에 바탕을 둔 신앙은, 하나님의 존재와 그리스도를 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서 알고, 나의 구원을 위해 그 분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뢰는 모든 희망과 구원을 한 분 하나님과 오직 예수님께 둡니다.

성경은 때로는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로, 혹은 우리의 의지의 작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믿게 해 주셔야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믿음을 변치 않고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의 책임입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가 우리의 책임을 배제(exclude)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은혜가 책임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말은 은혜 아래에서도 우리의 책임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책임이 바로 의지의 활동이며, 어떤 상황에서든지 언제 어느 때에든지 **Total commitment** 를 하는 것입니다.

신뢰하는 사람은 환란이 있거나 어려운 일이 있어도 마음에 변함이 없이 주만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이로울 때는 주를 찾고 불리하면 헌신짝처럼 버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변함없이 주만 의지하는 의지의 활동을 신뢰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전도할 때 일입니다. 유대인들이 몰려와 돌로 바울을 쳤습니다. 죽은 줄로 알고 성밖에 끌어 내다 버렸습니다. 제자들이 둘러 섰을 때에 바울이 털털 털고 일어나 성에 들어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제자들에게 말하길

사도행전 14 : 22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바울의 이런 결단 있는 태도나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에 거하라고 하는 것은, 단순 지적 동의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신뢰하는 의지의 활동을 계속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환란이나 핍박 가운데 계속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은혜가 먼저요 다음은 우리가 의지를 통해 신뢰 함으로 이루어집니다.

저는 얼마전 교통 사고로 인하여, 자동차가 한쪽 다리 위로 지나가 다리가 짧아졌는데, 9 년간 기도하여 두 다리의 길이가 같아진 사람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왜 9 년간이나 기도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응답이 왔으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더 되지 않을까요?

**3.3.2**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 있는데, 믿음과 때의 법칙입니다.

믿음에 대하여 예수님께서서는

마태복음 21 : 21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 이 산더러 들러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것이요

마태복음 21 : 22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고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대하여는

전도서 3 : 1 천하에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를 때가 있나니

전도서 3 : 2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의 믿음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하시면서도, 그것을 이루는 때는 하나님의 권한 아래 두셨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이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긴 시간을 인내하며 기다리며 기도하게 하셨는가요?

기다림을 통하여, 인내의 시간 속에서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점점 강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뢰를 강하게 하시고자 우리로 인내하며, 기다리게 하십니다. 이런 기다림의 시간 인내의 시간이 지나갈 때는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하고 성경을 더 깊이 공부를 하며 믿음을 키워야 합니다. 이렇게 준비하는 가운데 믿음의 양이 차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의 믿음은 가시적 실체로서 우리에게 다가 오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 새벽이 다른 사람보다 먼저 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좋은 농부라고 하여 가을이 되기 전에 수확을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을 갖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요, 믿음의 양을 차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포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만 형편이 안 좋으면 그것을 교회 안 갈 이유로 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태도가 아닙니다. 형편이 안 좋을 때는 기도하라는 때이며, 형편이 좋을 때는 감사하라는 때입니다.

이렇게 끝까지 신뢰하며, 초지일관하는 것이 의지의 작용입니다.

저는 우리 딸에 대한 간증을 하나 하겠습니다. 저는 여태까지 평범한 가정으로 살아 왔기 때문에 제가 애들을 키우며 체험한 은혜뿐이 간증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딸 은혜는 원래 의대를 가려고 했던 애가 아닙니다. 법률을 공부한 후 워싱턴에 가서 정치를 하겠다고 하며, 대학 시절엔 주로 정치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대학시절에는 **President Running mate** 로 나가기도 하였습니다. 몇 년 전 감사절 다음 날 제가 갑자기 밤에 배가 아파 **ambulance** 를

타고 응급실에 가게 되었습니다. 저희 딸은 병원에서 12 시간 동안 나와 함께 있을 때 의사가 되어야겠다고 생각이 바뀌었다고 하였습니다.

의대는 지원서를 넣고, 인터뷰를 하고, 그 다음에 합격 통지서가 와야 합니다. 여러 의대에 지원서를 넣었지만, 인터뷰 통지를 한군데에서만 받았읍니다. 은혜는 인터뷰를 하고 나서 자기가 합격하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다 지나도 합격 통지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은혜는 확고부동하게 합격 통지서가 올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6 월이 지나고, 7 월이 지나도 합격 통지서가 안왔습니다. 저는 틀렸구나 생각했지만 딸이 확고부동하게 믿고 있는데 포기하라는 말을 못했습니다. 할 수 없이 8 월이 다 지날 때 인터뷰를 한 학교에 전화를 해보라고 했더니 그 날이 신입생들 **orientation** 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이제는 불합격된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한 것은 은혜는 교회에 가서 기도만 하면 평안과 믿음이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합격자들이 결정되어 **orientation** 을 하고 있는데도, 자기에게 통지서가 오리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때 하나님께서 은혜의 마음에 믿음을 심어 준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은혜에게 말했습니다.

“은혜야 네 마음에 있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너는 그 믿음을 끝까지 간직해야 한다. 그렇지만 네 믿음이 이루어지는 때는 올해가 아닌지도 모른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하시면서도 그 믿음이 이루어지는 때는 하나님이 정하시길 원하신다. 그러나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는 큰 선물로 갚아 주신단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한해동안 더 열심히 공부하라” 고 말했습니다. 은혜는 그 믿음을 계속 간직하고 열심히 다시 공부한 후 다시 지원하였습니다. 6 군데에서 인터뷰 통지를 받고 2 군데에서 합격 통지서를 받았읍니다.

그것뿐이 아니라 **Central of Disease Control** 라고 하는 큰 연구 기관에서, 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6 개월간 **research** 하는 길도 열렸습니다. 이 **CDC** 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큰 기관으로 여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오래 기다려야 하며, 여기에서 연구한 것은 나중에 자기의 경력에도 들어가는 축복된 경험이 됩니다.

은혜는 의대에 합격한 것이나, **CDC** 에 발탁된 것이 중간에 포기하지 않은 자기의 믿음의 선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상태에서도 끝까지 믿고 신뢰한 믿음의 선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4 년이 지난 지금은 이 믿음의 선물로 하바드 대학에서 레지던스를 하는 축복도 받았습니다.

이와같이 믿음은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신뢰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사도 신경 안에는 현재 우리가 믿어야 내용도 있지만, 앞으로 이루어질 내용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 : 36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히브리서 10 : 37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히브리서 10 : 38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10 : 39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단순 지적 동의를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진 않습니까>

이 공부를 하신 분은 꼭 공부를 하신

사도신경 강해 시리즈 web-page 로 가셔서

공부를 하신 타이틀의

Like Button 을 눌러 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선교에 도움이 됩니다.

- Like button 을 누르지 않으셨으면 다음 공부로 가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Eg. 만약 사도신경 강해 서론을 공부하셨으면

인터넷 브라우저의 좌측 상단으로 가셔서



를 누르시면 사도 신경 강해 web-page 로 돌아 갑니다.

거기에서 사도신경 강해 서론을 설명한 내용 하단에

Like Button 이 있습니다.

모든 타이틀마다 다 Like Button 이 있습니다.